

성전 재료들의 내재적인 의미

11/28 월요일

아침의 누림

왕상 6:15

15 그는 백향목 널빤지로 집 안 벽을 만들었는데, 집의 안쪽을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나무로 입혔다. 그리고 집의 바닥에는 편백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고전 2:2

2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빌 1:19-21a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3:9, 12a, 16-17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자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16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엡 3:2

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벧전 4:10-11

10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11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습니다. 아멘.

성전 건축에 사용된 다양한 종류의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다양한 방면을 상징한다. 고대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무덤 위쪽에 편백 나무를 심었다. 따라서 편백나무(왕상 6:15 하, 34)는 죽음을 거치신 그리스도의 인성,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비교 창 6:14 과 각주 1). 백향목은 레바논 산지에서 자랐다(시 104:16). 따라서 백향목(왕상 6:9, 10 하, 15 상, 16, 36)은 부활을 거치신 그리스도의 인성,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비교 아 4:8 과 각주 2). 올리브기름은 하나님의 영의 예표이다. 따라서 올리브 나무(왕상 6:23 31-33)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 곧 기름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히 1:9). (왕상 6:15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성전에는 세 종류의 나무들, 곧 편백나무와 백향목과 올리브 나무가 사용되었다.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편백나무는 죽음을 상징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들의 죽음을 상징한다. 성전의 문들은 편백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의 죽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커다란 입구라는 것을 상징한다.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은 높은 산지에서 자랐다. 영적인 관점에서 백향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이들을 상징한다. 성전 바닥부터 위까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백향목으로 건축되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위로 건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세 번째 나무는 올리브 나무이다. 올리브 나무는 문들에 사용되었고, 그 문들 위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었다. 올리브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따라서 올리브 나무는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을 상징한다. 그룹이 새겨진 올리브 나무로 된 문들은 영적인 것들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신 성령을 상징한다.

요약하면,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주 예수님에 관한 위대한 세 향목을 보여 준다. 첫째 향목은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둘째 향목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며, 셋째 향목은 주님께서 그 영이 되신 것이다. 이 세

종류의 나무는 또한 구원받은 이들인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우리의 영적인 체험의 세 방면을 보여 준다. 교회 안에서 함께 건축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들이어야 한다. 즉, 그들은 반드시 편백나무여야 한다. 둘째로,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들이어야 한다. 즉, 그들은 반드시 백향목이어야 한다. 셋째로,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 있는 이들로서, 영적인 것들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입구를 가지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가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나야 한다. 즉, 그들은 반드시 올리브 나무여야 한다. ... 교회 안에는 오직 부활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새사람만 있으며, 이 새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이다. (교회 건축의 이상, 5 장, 112-114 쪽)

교회는 타고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즉 편백 나무이며 백향목인 사람들로 구성된다.

사람의 타고난 능력은 결코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없으며, 또한 교회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없다. ... 오직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것만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 (교회의 세 방면, 1 권, 교회의 의의, 15 장, 288-28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교회 건축의 이상, 3, 5-6, 9 장

11/29 화요일

아침의 누림

왕상 6:34-35

34 편백 나무로 된 문짝 둘을 한 문짝이 두 쪽으로 접히고, 다른 문짝도 두 쪽으로 접히게 만들었다.

35 문짝들 위에는 그룹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기고, 새긴 것 위에 골고루 금을 입혔다.

호 14:5-6

5 이스라엘에게 나는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처럼 망울지고 레바논 나무들처럼 뿌리 내리리라.

6 그의 가지는 뺨어 나가고 그의 광채는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나무들 같으리라.

왕하 19:30

30 유다의 집 사람들 중에 피신하여 남은 이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시 104:16

16 여호와와 나무들에 수액이 가득하니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에

아 4:8

8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갑시다.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들의 굴에서, 표범들의 산에서 바라봅시다.”

겔 17:22-23

22 주 여호와와가 이렇게 말한다. 또한 내가

백향목 높은 꼭대기의 작은 가지 하나를 따서 심으리니, 어린 작은 가지들 중 맨 꼭대기의 연한 것 하나를 잘라다가 우뚝 솟은 높은 산에 옮겨 심겠다.

23 내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그것을 옮겨 심으면,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내며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온갖 종류의 많은 새들이 그 아래 동지를 틀고 그 가지 그늘에 동지를 틀 것이다.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성전과 관련된 건물들의 모든 부분에는 나무가 입혀져 있었다(겔 41:16).

덧입힌 나무에는 모두 그룹과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었다(겔 41:18-20), 그룹은 ... 피조물에게서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룹들 사이에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었는데, 야자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영원하며 영존하는 능력을 상징한다.

그룹과 야자나무는 나무 위에 그려지지 않았고 나무 안으로 새겨졌다. 이것은 덧입힌 나무인 우리가 주님께 의해 새겨질 필요가 있음을 계시한다. 우리는 어떤 형제자매를 만날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새기신 무언가가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주님의 영광이 그들 안으로 새겨졌다. 영원한 능력, 신선함, 항상 푸른 생명이 그들의 존재 안으로 새겨졌다. 주님께서 새기신 것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이러한 종류의 형상과 인상을 지닌다. (에스겔 라이프 스타디, 23 장, 290-29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호세아서 2 장 15 절부터 23 절까지, 3 장 5 절, 6 장 1 절부터 3 절까지, 10 장 12 절에 제시된 것과 같이, 호세아서 14 장 4 절부터 8 절까지는 복원된 이스라엘(마 19:28)에 대한 그림이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한 생활을 상징하는 백합화처럼 망울질 것이며, 높아진 인성 안에 견고히 서는 것을 상징하는 레바논의 나무들처럼 뿌리 내릴 것이다. (번성과 확산을 상징하는 그의 가지는 뺨어 나갈 것이며, (열매 맺음으로 나타난 영광을 상징하는 그의 광채는 올리브나무 같으며, (높아진 인성 안에 나타난 생활의 달콤한 향기를 상징하는) 그의 향기는 레바논 나무들 같을 것이다. (그들이 누린 충분한 은혜가 그들 위에 드리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고후 12:9) 그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이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만족시키는 양식을 산출하도록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곡식같이 소생될 것이고, 기운을 북돋우는 음료를 산출하도록 꽃을 피우는 것을 상징하는 포도나무같이 움돋을 것이다. (맛 좋은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는 것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회복 안의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상태이기를 바란다. 그럴 때 우리는 ... 백합화들과 레바논 나무들과 올리브나무들과 움돋는 포도나무들 같을 것이다. (호세아-말라기 라이프 스타디, 8 장, 70-71 쪽)

에베소서 1 장 19 절과 20 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에 대해서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권능의 운행을 보여 주는 곳이다. ... 강하다고 해서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능이 있다고 해서 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한 권능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신 것과 동일한 강한 권능이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안에 운행되고 있다. 교회는 본성에서뿐 아니라 능력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다. ...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마땅히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아야 한다. 교회는 주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동일하게 자유로우며, 주님과 같이 어떠한 제한에도 묶이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강한 권능은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안에도 운행되고 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능력의 저장고와 창고이다.

오늘날 동일한 부활 능력이 우리 안에 운행하고 있다.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할 때 그분을 머리가 되시게 했으며,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운행할 때 우리를 몸이 되게 한다. 위치만 니 전집, 59 권, 고령 훈련 기록(1), 10 장, 116-117 쪽, 11 장, 12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4 년, 4 권,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0-11 장; 위치만니 전집, 59 권, 고령 훈련 기록(1), 10-11 장*

11/30 수요일

아침의 누림

롬 11:17, 24

17 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 야생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24 그대가 원래의 야생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출 30:25, 30

25 너는 그것들로 바르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 잘 복합된 향기로운 관유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르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30 또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고전 15:45b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롬 8:16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시 106:48

48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하여라. 할렐루야.

벤후 1:4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일 2:20, 27

20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로마서 11 장 17 절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로 접붙여져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 된 것에 관해 말한다. 17 절에서 '기름진'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한다.

나무에서 기름진 것은 나무의 진액, 곧 생명 즙이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것, 곧 그리스도의 풍성은 생명 주시는 영이다. 그리스도는 부활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고전 15:45).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것인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기를 갈망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 즙이신 생명 주시는 영을 접촉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8 년, 1 권,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한 메시지 모음 8 장, 77-7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그 영이셔야 하며(고후 3:17),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이 있어야 한다(욥 32:8, 즉 12:1, 고전 2:11 상).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질 길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것은 영 안에 있는, 곧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의 연합 안에 있는 사실이자 실재이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인 사람의 영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문제이다(고전 6:17, 딤후 4:22).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을 무시한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오, 주님! 오,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상황에서 우리는 "오, 주님!"이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것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오...주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게 되며, 즉시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께 참여한다(고전 12:3). 우리는 긴 기도문을 지어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만 두 단어의 간단한 말인 "오, 주님!"이라고 말해야 한다. 주님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다(애 3:55-56).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주님을 접촉하며, 주님을 누리고, 기름진 것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 참여하게 된다.

로마서 11 장 24 절은 우리가 참올리브 나무에 본성을 거슬러' 접붙여졌다고 말한다. 주님께 접붙여지는 것은 항상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다. 우리는 본성상 모두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본성을 거슬러 그분께 접붙이셨다. 이것은 주님의 접붙임 안에는 항상 우리를 거스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접붙여진 참올리브나무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 곧 우리의 자아를 거스른다. 사실상 본성을 거슬러'라는 말은 '자아를 거슬러'라는 뜻이다. 주님께 접붙여지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거스르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타고난 겸손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의 본성을 거스른다.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본성을 거스른다. 이러한 두 본성은 서로 부합되지 못한다. 우리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고, 주님의 본성은 신성하고 하늘에 속하며 영적이고 거룩한 본성이다.

하나님의 참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인 그리스도의 풍성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연합된 영 안에 있는 문제이고,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반대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계시해 주시기를 바란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8 년, 1 권,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한 메시지 모음, 8 장, 788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8 년, 1 권,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한 메시지 모음, 2, 8 장

12/1 목요일

아침의 누림

눅 10:33-34

33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며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으며,

삿 9:13

13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였소. '나더러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새 포도주를 내는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건들거리란 말이오?'

롬 10:11-13

11 성경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합니다.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엡 6:17-18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고후 3:6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 2:17

17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올리브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비교 롬 11:17, 즉 4:11-14, 계 11:4 상),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올리브기름으로 상징되신 그 영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다 (눅 4:1 상, 18 상, 히 1:9). 올리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 (삿 9:9). 이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갈 5:16, 25), 그 영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는 것(고후 3:6, 8)을 상징한다.(삿 9:8 각주 1)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새 포도주를 산출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어 십자가에서 '짓눌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마 9:17). (삿 9:12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 길, 옛 습관, 옛 배경에 어느 정도 묶여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에 묶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호칭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더 많이 누리고, 그 풍성에 더 많이 참여한다. ...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옛 배경에서 더욱 잘리게 된다. 우리는 모든 옛것에서 잘리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수록,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통해 옛것에서 더욱더 잘릴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면,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 우리의 옷 입는 옛 방식을 잘라낼 것이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자르는 일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 장과 로마서 11 장은 두 종류의 나무, 곧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의 가지들에 대해 말한다.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내는 포도를 산출하고,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내는 올리브를 산출한다. 기름은 진정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포도주는 활력을 주고 분발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은 진정시키는 기름을 산출하는 올리브나무이시며, 또한 활력을 주는 포도주를 산출하는 포도나무이시다.

모든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이 내적으로 상처받고 침체되고 낙망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상처를 진정시킬 기름이 필요하고, 그들을 분발시키는 포도주가 필요하다. 우리는 올리브나무의 가지들과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진정시키는 기름과 활력을 주는 포도주를 산출하는 가지들이다. 기름과 포도주가 함께 더해질 때 사람들을 치료한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진정시키는 기름과 분발시키는 포도주를 산출할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올리브'와 '포도'를 맺어 다른 이들의 상처를 진정시키는 기름과 사람들을 분발시키는 포도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형제자매들을 접촉할 때 진정되고 위로를 얻고 분발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이것은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종일 말씀을 기도로 먹고, "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많은 기름과 포도주가 산출되었다.

요한복음 15 장과 로마서 11 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즉 우리는 나무들이 아니라 가지들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의 가지가 아니라 많은 가지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기름진 뿌리를 가진 나무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동료 가지들이 필요하다. 우리 각자는 단지 가지들 중 하나일 뿐이며, 가지들은 함께 조율되어 몸이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교회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에게는 뿌리가 필요하고 다른 가지들도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기름진 것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야

하고, 다른 가지들과 적절하고 합당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몸의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있는 신격의 총만을 누릴 것이고, 기름과 포도주를 내는 두 종류의 열매를 산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8 년, 1 권,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한 메시지 모음, 9 장, 84-85, 87-8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1 권, 생명 메시지 2, 58 장

12/2 금요일

아침의 누림

왕상 7:15

15 그는 두 돛 기둥을 만들었는데, 각 기둥의 높이가 십팔 규빗이었고 각 기둥의 둘레가 십이 규빗이었다.

롬 7:18

18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빌 3:3

3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후 1:12

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후 4:7-8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짓눌리지 않으며,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어도 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아 2:1-2

1 “나는 샤론의 장미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2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처럼 내 사랑이 딸들 가운데 그러하여라.”

마 6:28, 30

28 또 여러분은 왜 옷에 대하여 염려하십니까? 들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물레질도 하지 않습니다.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여러분을 더욱 잘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성경의 예표에서 돛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두 기둥이 돛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은 우리가 기둥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의 바울처럼 우리는 반드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오직 죽기에만 합당할 뿐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많은 형제들이 총명하며 능력이 있고, 많은 자매들이 아주 좋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지로 자신이 전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 우리는 오직 죽기에만 좋을 뿐이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83 장, 112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 건축에 참된 유익이 되는 이들은 모두 자신을 인도 직분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항상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저의 기질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의 타고난 생명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우리 안에, 즉 우리의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롬 7:18). 우리는 "저는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형제님들은 제가 장로들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주님은 결코 스스로 자격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할 때 늦과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 ... 늦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우리 자신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주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함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

열왕기상 7 장 17 절은 "격자무늬 그물과 사슬 모양 고리가 있었는데, 한 기둥머리에 일곱 개가 있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일곱 개가 있었다."라고 말한다.

교회 지체들이 겪는 모든 상황은 격자무늬, 곧 핀(pins)과 가시로 만든 관으로 둘러싸인 격자 울타리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얽혀 있고 복잡한 상황 안에서 책임을 짊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안에서 책임을 짊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열왕기상 7 장 19 절은 "주랑에 있는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백합 모양으로, 직경이 사 규빗이었다."라고 말한다. 백합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상징한다. 먼저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유죄판결 하면서, 우리 자신이 타락하고 능력이 없으며 자격이 없다는 것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우리의 존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어머함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머함으로 존재하는 백합이어야 한다(마 6:28, 30). 오늘날 땅에서의 우리의 생활은 그분께 달려 있다. 얽혀 있고 복잡한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면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백합이다. 내가 책임을 짊어지는 이가 아니다. 그분께서 책임을 짊어지는 분이시다. 나는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공급한다. 교회 안에서 어머니인 자매들은 반드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머니인 것은 나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유죄판결 받고 심판받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백합들이다. 늦은 '내가 아니요'를 의미하고, 백합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백합들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격자무늬와 사슬 모양으로 가득한 얽혀 있고 복잡한 상황 안에서 책임을 짊어지는 백합들임을 알 수 있다. ... 모든 격자무늬는 그 안에서 백합들이 자라는 토대이며 모판이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83 장, 1126-1127, 1134-113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83-84 장

12/3 토요일

아침의 누림

왕상 6:7

7 집이 건축될 때, 채석장에서 떠 내져 미리 손질된 돌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집이 건축되는 동안 집 안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다른 어떤 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벤전 2:4-5

4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엡 2:20-22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고후 4:16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엡 3:21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은 그리스도의 변화된 인성, 곧 변화 그리스도(왕상 6:7, 36, 5:17, 대하 3:6)를 상징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을 통하여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다(요 1:14, 히 2:14). 육체를 입은 사람, 곧 옛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의 부분이 변화되셔야 했다. 이렇게 변화되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물의 기초 돌, 모퉁이 돌, 살아 있는 돌, 보배로운 돌, 꼭대기 돌이시다(사 28:16, 고전 3:11 엡 2:20, 벘전 2:4, 계 4:3, 즉 4:7). 성전의 돌들은 또한 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 (마 16:18, 요 1:42, 벘전 2:5, 계 21:11, 14, 19-20). (왕상 6:7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성전 건축의 재료는 나무 외에는 대부분이 돌이다(왕상 5:15-18). 돌은 채석장이 있는 산에서 많은 수고로 떠내어졌다(6:7). 이것은 교회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세상에서 찾아내어 많은 수고로 떠내어졌음을 말해 준다.

구원받고 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의 돌이다. 이 돌들은 원래 깊은 산에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본래 세상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를 찾아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 후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수고로 우리에게 떠 내는 일을 한다. 영적인 돌들이 교회 건축에 사용되는데, 이 돌들에는 한 면으로 안의 생명이 필요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밖의 일이 필요하다. 신약은 살아 있는 돌들에 대해

말하고(벘전 2:5), 구약은 떠 내어진 돌들에 대해 말한다(왕상 5:15, 17-18, 6:7). 교회 건축을 위해 사용되는 돌들은 반드시 내적으로는 살아 있어야 하고 외적으로는 떠내어져야 한다. 내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은 거듭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돌들인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우리를 떠 내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성전이 건축되던 때에 모든 돌은 다 예비되어 있었다. 예비하는 일은 채석장에서 이루어졌다. 돌들은 먼저 떠내어졌고 특정한 치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실지로 건축할 때가 되면 다만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건축물이 되게 하였다. 성전을 건축하는 방식은 교회 안으로 건축되는 사람들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떠 내시는 일을 상당한 정도로 거쳐야 함을 시사한다.

성전의 건축 재료는 나무와 돌이었다. 나무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돌은 사람이 안으로는 거듭나야 하고 밖으로는 처리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교회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처리를 받은 사람들이다. 무릇 처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났을지라도 건축될 수 없다.

어떤 형제자매들의 상태를 볼 때, 그들이 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갓 떠내어진 돌이다. ... 그들은 건축될 만큼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다. 즉 다른 이들과 함께 동역하고 봉사하거나, 다른 이들과 함께 전쟁을 하거나, 다른 이들과 함께 언약궤를 짊어질 만큼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다. ... 그들이 일을 잘하고 융통성을 지녔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증거를 짊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전혀 처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너무 둥글고 무책임해서 사람과 일에 대해 마치 뻘질뻘질한 돌과 같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구르는 돌처럼 슬그머니 빠져나갈 수 있다. 그들에게는 네모반듯해지도록 떠 내어지는 일이 많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야 그들은 정확하게 치수를 갖추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 이럴 때 그들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며 함께 건축될 수 있다. (교회의 세 방면, 1 권, 교회의 의의, 15 장, 294-29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7 장

2022. 11. 28 ~ 2022. 12. 3

단체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1 년, vol. 1, “인생의 의미와 올바른 헌신”, 9 장

추가로 읽을 말씀

교회건축의이상, 5-6장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83장

찬송: 840 (영) 주여 나를 내 자아와 육에서 (중:606)

- 1 주님 나를 내 자아와 아담 본성서 구해 성도들과 건축되어 영광 나타내게 해 나의 특이함과 교만 단독에서 구원해 나를 주 순종케 하여 안식처 삼으소서.
- 2 흐르는 생명 공급이 자라고 변케 하네 나의 위치에서 힘써 성도들 온전케 해 다른 사람 밟지 않고 내 본 것 아는 것 다 주 위해 바쳐 일하여 주님의 몸 건축해.
- 3 지식과 체험 있다고 교만할 수 없으리 순종하며 겸손하게 몸에 상합되겠네 머리를 붙들므로써 온 몸이 자라나니 마디와 힘줄 통하여 공급받고 연합돼.
- 4 그 영으로 강하게 돼 속사람에 이르네 주의 넓고 깊은 사랑 헤아릴 수 없도다 그리스도 풍성 누리 주 총만에 이르러 온전한 사람 이룰 때 몸이 건축되겠네.
- 5 주의 몸 된 그 집에서 건축되기 원하니 단체적인 그릇으로 주 영광 표현하리 주의 신부 예루살렘 머지않아 나타나 빛나는 등잔대 통해 주의 가치 보겠네.

12/4 주일

아침의 누림

호 14:5-9

- 5 이스라엘에게 나는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처럼 망울지고 레바논 나무들처럼 뿌리 내리리라.
- 6 그의 가지는 뺏어 나가고 그의 광채는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나무들 같으리라.
- 7 그 그늘 아래 앉은 이들이 돌아와 곡식같이 소생되고 포도나무같이 움 돋으리니 그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 8 에브라임이 ‘제가 이제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니 나 응답하며 그를 바라본다. ‘나는 푸른 전나무와 같으니 나에게서 네 열매를 얻으리라.’ ”
- 9 지혜로운 이 누구인가? 그가 이것들을 깨닫게 하여라. 지각 있는 이 누구인가? 그가 이것들을 알게 하여라.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니 의인은 그 길을 따라 걷지만 범법자들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시 92:12-14

- 12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 13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심어져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며
- 14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고 진액이 가득하며 항상 푸르니

왕하 19:30

- 30 유다의 집 사람들 중에 피신하여 남은 이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